



볼트 “금요일 200m서 보자”

실격충격 속 200m 타이틀 방어 준비
 “지금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충격의 부정출발로 실격당한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가 한밤의 질주로 괴로운 마음을 달랬다.
 우사인 볼트는 28일 열린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 대회 최대 이변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됐다.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이자 올림픽·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메이저대회에서 3연속 3관왕을 노리던 ‘슈퍼 스타’가 경기장을 뛰어보지도 못하고 트랙에서 물러나자 대구 스타디움의 관중석은 아쉬운 탄성으로 가득찼다.
 볼트의 아쉬움은 더 컸다. 볼트는 부정 출발 총성 후 유니폼 상의를 벗

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출발선 뒤쪽으로 걸어간 볼트는 경기장 벽을 내리치는 등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믹스트 존)을 피해 경기장을 빠져나간 볼트는 곧장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으로 가 트랙을 달리며 ‘분노의 질주’를 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볼트는 200m 타이틀 방어 여부에 대해선 “경기가 금요일(9월2일)이나, 그럼 금요일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야밤의 ‘분노의 질주’를 펼쳤던 볼트는 100m 부정 출발로 탈락한 지 하루만인 29일 오후 선수촌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오전 내내 선수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볼트는 요한 블레이크, 네스

타 카터 등과 함께 바통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면서 400m 계주 출전을 준비했다. 이날 에이전트를 통해 200m에서만 큰 타이틀을 꼭 방어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100m 출발선에서 아쉬움을 삼킨 볼트는 내달 2일 남자 200m 출전을 위해 다시 대구 스타디움에 섰다.
 200m 결승은 3일 밤 9시20분에 열린다. 4일에는 대회 마지막 메달이 걸려있는 400m 릴레이에 출전해 대회 2관왕에 도전한다.
 /대구=한신협 공동취재단



‘침범 침범’ 장애물 넘기 29일 오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3000미터 장애물 경기 예선에서 선수들이 장애물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미녀새’ 세계新 넘을까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 이신바예바에 이목 집중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나흘째인 30일에는 장신의 미녀 선수들이 펼치는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에 세계 육상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오후 7시5분 시작되는 장대높이뛰기에서는 ‘미녀새’ 엘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와 스베틀라나 페오파노바(러시아), 안나 로고브스카(폴란드), 마르티나 슈트루츠(독일) 등이 출전해 금메달을 놓고 다툰다.
 이 종목에서 세계 기록(5m6)을 보유한 이신바예바는 10년 동안 정상에 지켰지만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후 2년 동안 부진에 빠졌던 이신바예바는 지난 7월 벨기에에서 열린 ‘2011 육상의 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이신바예바에게는 명예 회복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30일 오후 9시 시작되는 남자 800m에서는 다비드 레쿠타 루디사(에티오피아)를 눈여겨봐야 한다.
 루디사는 지난해 8월 이탈리아 리에티에서 열린 월드컵 시리즈에서 1분41초01을 찍고 세계기록을 세웠고 올 시즌 기록도 1분42초61로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다. 루디사는 이번에 세계선수권대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세계新·대회新 ‘0’...기록흥작 언제까지

29일로 대회 개막 사흘째를 맞은 제 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기록 경쟁보다 순위 경쟁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자 마라톤과 남자 경보 20km, 남자 100m 등이 끝난 상황에서 자국신 기록(NR)만 몇 차례 나왔을 뿐 초반의 기록 흥작 현상이 두드러진다. ‘기록의 산실’, ‘마법의 양탄자’로 불리는 몬트레악으로 새로 단장하고 선수들을 맞이한 대회 조직위원회로서는 당혹스러울 만도 하다.
 ‘번개’ 우사인 볼트가 부정 출발 실격으로 빠진 남자 100m 결승에서는 요한 블레이크가 9초92라는 ‘평범한’ 기록으로 우승했다. 볼트가 2년 전 베를린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웠던 세계기록 9초58에 턱없이 뒤지는 것이다.
 여자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미국의 브리트니 리즈도 자신의 시즌 최고기록(7m19)에 한참 모자란 6m82만 뛰고도 정상을 밟았다. 남자 1만m와 여자 원반던지기에서도 각각 시즌 최고기록에 못 미친 기록으로 우승자가 배출됐다.
 기록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

기록보다 순위경쟁 조직위원회 ‘당혹’

은 기록보다는 명예가 따르는 순위가 더 중요하기에 여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견해다.
 두 번째로는 거물급 스타들이 대회에 불참하면서 기록도 하향 평준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타이슨 게이, 아사파 파월 등 세계를 주름잡는 100m 스프린터와 남자 400m 우승후보 제러미 워리너가 각

각 수술과 부상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또 ‘절대 강자’가 사라져 기록 수립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남자 100m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칼 루이스와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세르게이 부브카처럼 한 종목을 10년 이상 지배했던 슈퍼스타들이 있었다.
 지금은 볼트와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이신바예바 정도만이 최강으로 대접받는 상황. 그러나 이신바예바는 2009년 베를린 세계대회 이후 하락세고, 볼트도 28일 ‘실격’이라는 걸림돌을 만나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연합뉴스

GRAND OPEN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8월 30일

위 치 :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주차안내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